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출하 · 재고 순환/소비/물가

■ 고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기준 서울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3.0(2000=100)으로, 중공업과 경공업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25.3%, 10.4% 크게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에 비해 14.5% 감소함 ○ 3월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0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4.5%, 대형마트는 11.7%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8% 증가함 ○ 4월 기준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전월(0.6%)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감소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참가를 전년동월대비 보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3.0%로 남자는 75.0%, 여자는 51.7%임 ○ 4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493만9천명으로, 2006년 11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 4월 들어 전년동월대비(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4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4.1%이며, 전국과의 격차는 전월과 동일한 0.7%p로 서울의 실업률이 전국(3.4%)에 비해 높게 나타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7,65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1% 감소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 및 재건축 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36.1% 감소하고, 신규주택 및 도로·교량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 15.4% 감소함 ○ 4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월(0.4%)에 비해 상승폭이 0.2%p 감소함 - 4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0.6%)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액 큰 폭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61조 3,788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6,084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3조 1,438억원)보다 크게 확대됨 ○ 4월 기준 전월대비 서울의 신설법인 수 감소, 부도업체 수 감소, 어음부도율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1,879개) 보다 115개(-6.1%) 감소한 1,764개임 - 4월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5개) 보다 13개 감소한 52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하고,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함 ○ 4월 기준 KOSPI 지수 전월에 이어 계속된 사상 최고치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중 주식시장은 한미 FTA 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감, 미·중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4월 기준 콜금리(1일) 2001년 상반기 이후 사상 최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66%로, 전월대비 0.27%p 크게 상승하여 2001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생 · 산 |

3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전년동월비 감소세 확대

■ 전국 산업생산 상승세로 전환

- 3월 전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도 높은 증가율(10.7%)에 따른 기저효과, 반도체 업종 중심의 재고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함
- 업종별로는 영상음향통신의 부진이 지속(-15.9%)되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2월 -6.3%→3월 2.1%)되고 반도체 생산도 증가세가 다소 확대(2월 6.6%→3월 10.6%)되는 모습을 보임
- 1/4분기 전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3.3%에 머물러 2006년 4/4분기 증가율(5.2%)을 하회함

■ 서울 제조업부문 산업생산 감소폭 확대

- 3월 서울의 제조업 생산지수는 83.0(2000=100)으로, 전년동월대비 14.5% 감소하여 감소폭이 두배 가량 확대됨
- 업종별로 보면 가죽·가방 및 신발 등에서 증가한 반면 섬유제품, 인쇄출판,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복 및 모피, 화합물 및 화학제품, 기타기계 및 장비 등에서 감소함
- 1/4분기 서울의 제조업 생산은 7.5% 감소하여 2006년 4/4분기 증가율(-6.5%)을 소폭 하회함

■ 서울 중공업부문, 경공업부문 모두 감소폭 확대

-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5.3% 감소하여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컴퓨터 및 사무기기(6.3%)만 증가하고, 그 외 화합물 및 화학제품(의약품, -75.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36.0%),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무선통신중계기, -32.4%) 등 대부분이 감소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하여 감소폭이 세배 이상 확대됨
- 세부업종별로 가죽·가방 및 신발(구도 및 캐주얼화, 13.1%)만 증가하고, 그 외 섬유제품(자동차용카바, -22.6%), 음식료품(-19.1%), 인쇄출판(서적, -9.5%)등 대부분이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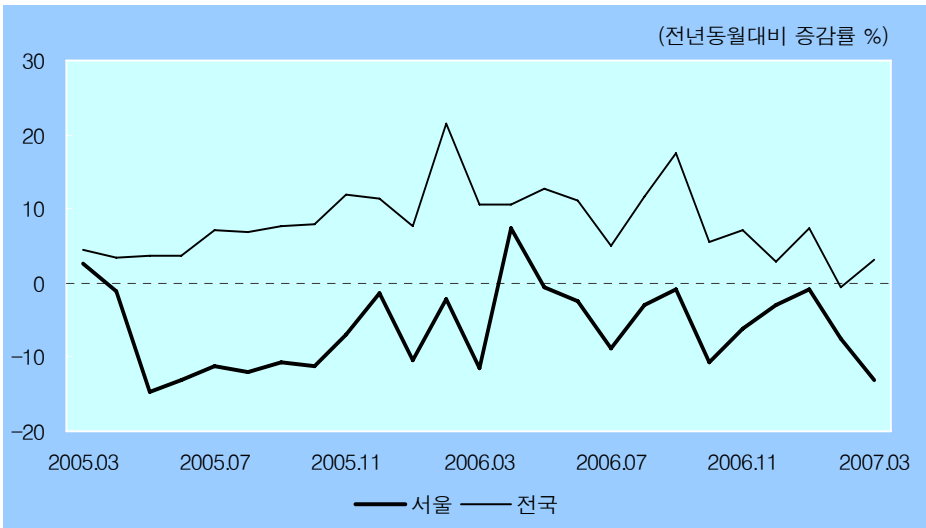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전 년 동 월 대 비	전국	10.7 (1.3)	7.1 (-0.2)	3.0 (-2.8)	7.5 (1.3)	-0.6 (0.3)	3.1 (-0.4)
	서울 (제조업)	-11.6 (19.0)	-6.2 (8.9)	-2.3 (8.3)	0.3 (-14.7)	-7.6 (-13.5)	-14.5 (10.1)
	중공업	-41.8 (15.0)	-21.6 (11.2)	-13.8 (25.2)	6.7 (-14.2)	-16.5 (-19.1)	-25.3 (2.9)
	경공업	9.3 (20.6)	-0.2 (8.1)	2.7 (3.0)	-2.0 (-14.9)	-3.7 (-11.0)	-10.4 (12.7)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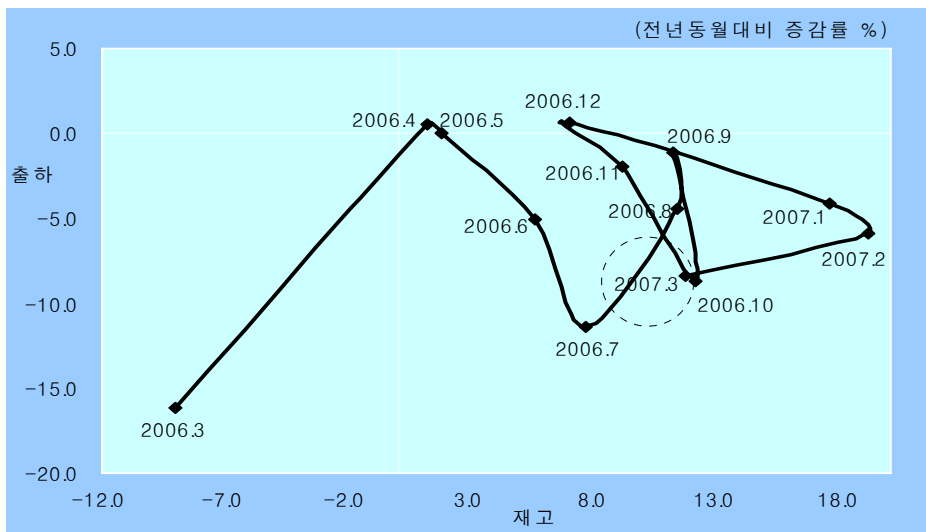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3월 기준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

- 3월 서울 제조업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8.4% 감소하고, 재고는 11.7% 증가함
- 서울 제조업 출하·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출하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재고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어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출하·재고 상황은 전체적으로 출하 전년동월비는 소폭 하향하고 재고 전년동월비도 대폭 하향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출하 ↓	출하 ↑	출하 ↑	출하 ↓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큰 폭으로 하락

- 3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94.5%로 전월대비 0.5%p 하락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전월 보다 큰 폭(25.9%p)으로 하락한 174.1%로, 전월까지 이어지던 가파른 상승세가 진정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전월대비 63.1%p 하락한 170.4%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전월대비 13.8%p 하락한 185.6%로 나타남. 특히, 중공업부문에서 크게 하락한 재고율은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하락에 영향을 줌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재고율	전국	93.4	92.8	94.4	96.7	95.0	94.5
	서울 (제조업)	142.9	149.5	135.0	187.9	200.0	174.1
	중공업	114.4	135.3	113.9	219.8	233.5	170.4
	경공업	151.9	152.2	141.1	176.5	187.6	173.8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로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3월 기준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비 증가세 둔화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축소

- 3월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8,70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2%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증가는 에어컨, 컴퓨터 등의 내구재 판매가 호조를 보인 데 주로 기인함
- 백화점은 음식료품, 화장품 등의 판매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0.1% 증가함
- 대형마트는 가전제품, 의복 등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2.8% 증가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세 둔화

- 3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3,08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판매액은 4.5%, 대형마트는 11.7%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7.8% 증가함
- 백화점부분의 경우 일부 백화점 정기세일 및 혼수용품 행사에 따른 가전, 가구, 귀금속, 의류 등의 상품군에서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함
- 대형마트부분은 의복, 신발, 가방 등 봄 신상품 판매증가와 가전, 음식료품의 판매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1.7%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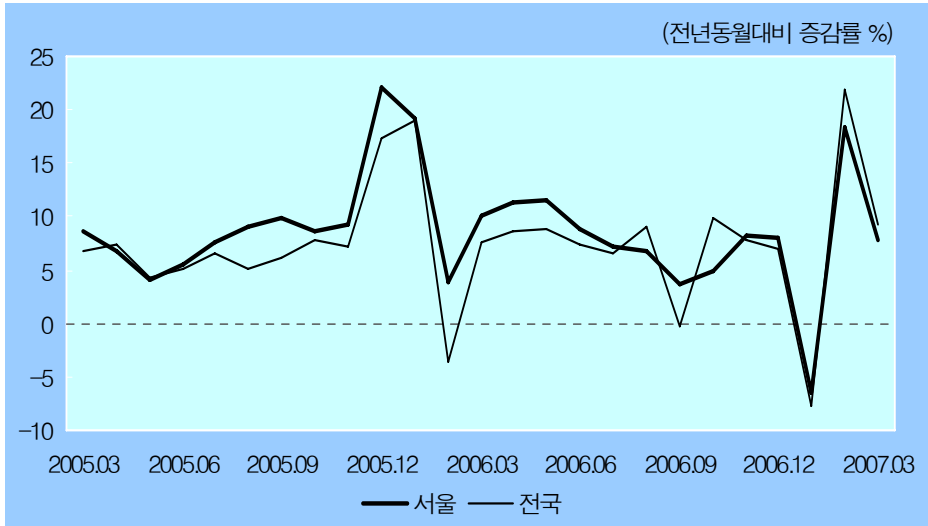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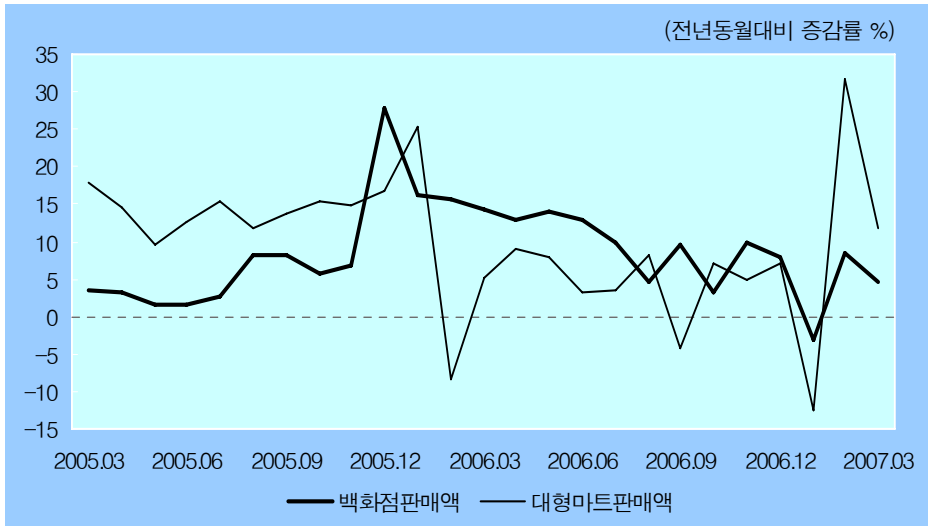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3월	11월	12월	1월	2월p	3월p	
판매액	전국	3,543.2 (7.7)	3,791 (7.8)	4,369 (6.9)	3,679 (-7.8)	3,939.6 (21.9)	3,870.8 (9.2)
	서울	1,214.0 (10.0)	1,277 (8.2)	1,555 (8.0)	1,254 (-6.5)	1,271.1 (18.3)	1,308.0 (7.8)
	백화점	702.7 (14.2)	750 (9.9)	966 (7.9)	725 (-3.1)	661.0 (8.6)	734.4 (4.5)
	대형마트 (할인점)	470.3 (5.2)	496 (4.9)	548 (7.1)	485 (-12.5)	568.2 (31.7)	525.2 (11.7)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4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감소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감소

- 4월 전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0.2%p) 감소함
- 이는 농축수산물(-0.5%)은 하락하였으나, 공업제품(0.9%), 공공서비스(0.7%), 집세(0.2%), 개인서비스(0.0%)가 상승하거나 보합인데 기인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상승폭 확대

- 4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감소함
- 전국의 물가상승률보다 0.1%p 높은 수준으로, 지난 5년간 4월 평균 물가상승률(0.2%)과 비교할 때 0.1%p를 상회함
- 비목별로 보면 교양·오락(-0.4%), 주류·담배(-0.1%)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시내버스료와 전철료의 인상으로 교통(3.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4%), 교육(0.3%), 기타잡비(0.3%) 부문은 상승함

■ 상품부문이 서비스부문에 비해 소폭 상승

- 상품성질별 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상품부문은 전월대비 0.5%, 서비스부문은 0.4% 상승하여 상품부문이 서비스부문에 비해 소폭(0.1%p) 상승함
- 상품부문을 보면 농축수산물은 0.4% 하락하고, 공업제품은 사진기 등은 내렸으나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월대비 0.7% 상승함
- 서비스 부문을 보면 시내버스료, 전철료 등이 올라 공공서비스가 전월대비 1.3% 상승하였으며, 집세는 전세부문이 올라 0.2% 상승하고, 개인서비스는 0.0%로 보합을 나타냄

■ 신선식품지수 큰 폭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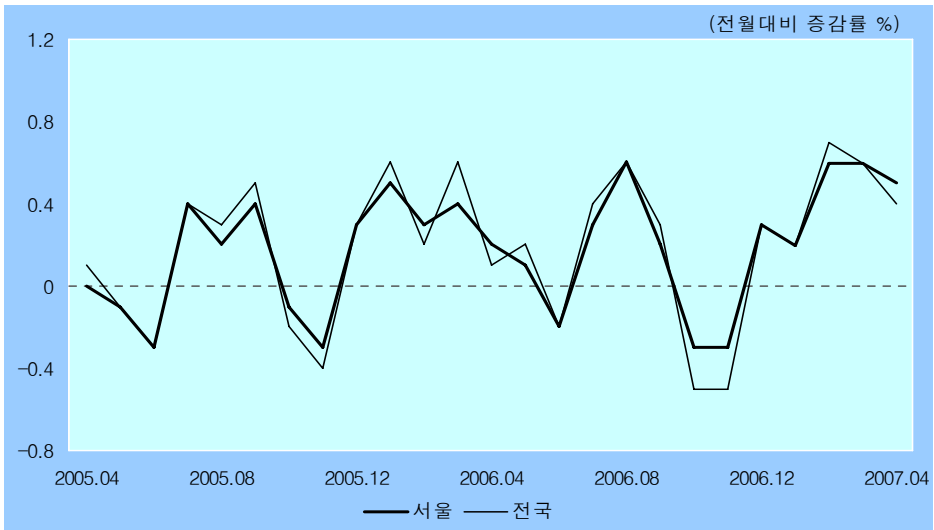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상승폭이 감소(0.4%p)함
-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일과 기타신선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지난달(-1.8%)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 월 비	전국	0.1 (2.0)	-0.5 (2.1)	0.3 (2.1)	0.2 (1.7)	0.7 (2.2)	0.6 (2.2)	0.4 (2.5)	
	서울	0.2 (1.9)	-0.3 (2.1)	0.3 (2.1)	0.2 (1.8)	0.6 (2.1)	0.6 (2.3)	0.5 (2.6)	
	상품 성질별	상품	0.3 (0.9)	-1.0 (0.9)	0.4 (0.8)	0.1 (0.2)	1.1 (1.3)	0.1 (1.7)	0.5 (1.9)
		서비스	0.1 (2.4)	0.0 (2.7)	0.2 (2.7)	0.3 (2.6)	0.4 (2.5)	0.9 (2.6)	0.4 (2.9)
	생활물가	0.1 (3.0)	-0.7 (2.6)	0.4 (2.7)	0.1 (1.9)	0.8 (2.2)	1.1 (2.6)	0.7 (3.2)	
	신선식품	-0.1 (-2.2)	-6.8 (1.2)	3.0 (0.6)	0.6 (-3.1)	6.8 (4.0)	-1.8 (2.6)	0.7 (3.4)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4월 기준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비 포함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동일

- 4월 전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1% 증가한 3,909만1천명이며, 경제활동 인구는 0.8% 증가한 2,396만명임
- 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62.3%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으며 남자는 74.5%, 여자는 50.7%임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포함

- 4월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17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는 515만1천명으로 전년동월과 동일하여 포함을 나타냄
-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한 63.0%로 남자는 75.0%, 여자는 51.7%임
- 반면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6% 증가함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0 (1.3)	1.0 (-0.1)	1.1 (-1.9)	1.0 (-0.8)	0.7 (-0.2)	0.8 (1.8)	1.0 (1.6)
	서울	0.4 (0.1)	-0.2 (0.3)	-1.0 (-0.9)	-0.4 (0.1)	-1.1 (-1.0)	-1.1 (0.3)	0.0 (1.1)
	남자	0.1 (-0.4)	-1.3 (-0.1)	-1.6 (-0.6)	-0.4 (0.3)	-0.4 (-0.2)	-1.2 (0.4)	0.0 (0.8)
	여자	0.9 (0.7)	1.3 (0.8)	-0.2 (-1.3)	-0.4 (-0.2)	-1.9 (-2.1)	-0.8 (0.2)	0.0 (1.5)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3	62.3	61.1	60.5	60.4	61.4	62.3
	서울	63.2	63.4	62.8	62.8	62.1	62.3	63.0
	남자	75.1	74.6	74.3	74.3	74.2	74.5	75.0
	여자	51.9	52.7	52.0	51.9	50.8	50.9	51.7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4월 기준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취업자 수 증가

- 4월 전국의 취업자는 2,3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27만8천명) 증가하여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의 58.0%(1,363만1천명), 여자는 42.0%(988만9천명)로 남자는 전년동월대비 1.1%, 여자는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한 반면에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5.9%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은 감소세, 고령층은 증가세인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감소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됨

■ 서울의 취업자 수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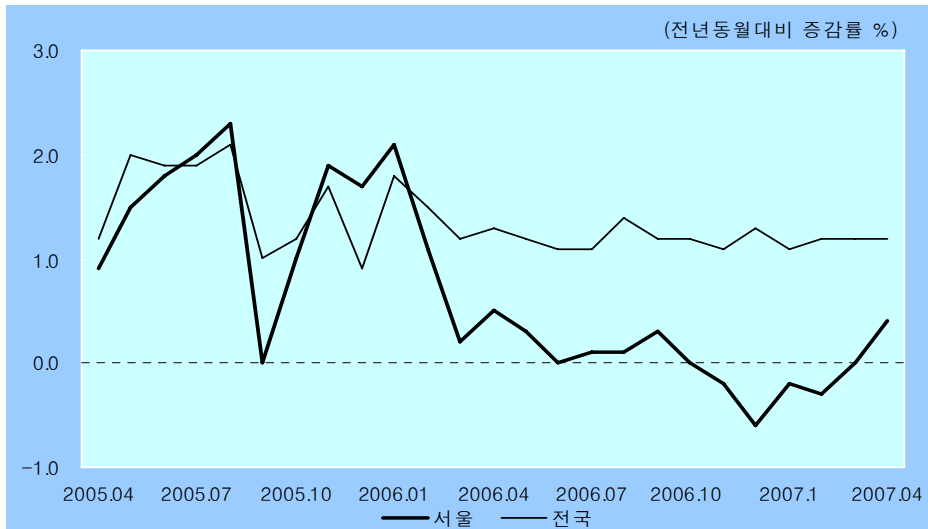
- 4월 서울의 취업자는 493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함
- 전국의 취업자 수는 2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보합을 보인 반면에, 서울의 취업자 수는 지난 11월 이후 전년동월비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4월 들어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체 취업자 수의 57.4%(283만3천명), 여자는 42.6%(210만7천명)로 전체 취업자중 남자 취업자와 여자 취업자의 비중은 전국에 비해 0.6%p 높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2% 증가하고 여자는 0.8%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남자 취업자의 하락세는 증가세로 반전됨
- 전체 취업자의 21.4%(105만7천명)를 차지하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하여 전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감소율을 나타냄
- 전체 취업자의 15.0%(74만2천명)를 차지하는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7.7% 증가하여 전년동월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냄
- 고령층 취업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 사이의 취업자가 1.8% 증가한 것에 비해 60세 이상은 12.6%로 크게 증가함

〈표〉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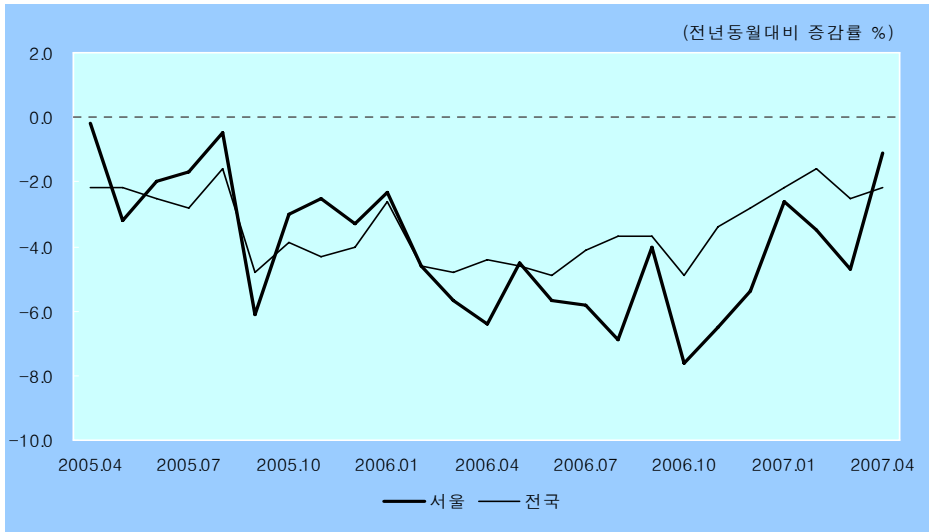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취업자	전국	1.3 (1.7)	1.1 (0.0)	1.3 (-2.0)	1.1 (-1.1)	1.2 (-0.2)	1.2 (2.0)	1.2 (1.7)
	서울	0.5 (0.7)	-0.2 (0.6)	-0.6 (-0.8)	-0.2 (-0.4)	-0.3 (-0.9)	0.0 (0.8)	0.4 (1.2)
	남자	-0.3 (0.0)	-1.6 (0.1)	-1.5 (-0.7)	-0.9 (-0.4)	0.2 (0.5)	-0.4 (0.8)	0.2 (0.6)
	여자	1.7 (1.7)	1.7 (1.3)	0.4 (-1.1)	0.7 (-0.3)	-1.0 (-2.7)	0.5 (0.7)	0.8 (1.9)
청년층 취업자	전국	-4.4 (0.3)	-3.4 (1.0)	-2.8 (0.6)	-2.2 (2.2)	-1.6 (-2.1)	-2.5 (-2.2)	-2.2 (0.6)
	서울	-6.4 (-1.2)	-6.5 (1.4)	-5.3 (1.1)	-2.7 (3.6)	-3.5 (-2.9)	-4.7 (-2.1)	-1.1 (2.5)
고령층 취업자	전국	3.1 (4.9)	6.3 (-1.5)	6.4 (-7.8)	6.4 (-3.9)	6.4 (1.0)	5.6 (7.2)	6.6 (5.9)
	서울	1.6 (1.6)	7.4 (0.3)	6.3 (-1.8)	6.1 (-2.7)	6.3 (-0.6)	6.1 (2.2)	7.7 (3.2)
	55-59세	-2.8 (2.0)	2.6 (1.3)	-1.6 (-3.4)	-1.6 (-2.3)	-2.3 (-1.0)	1.6 (3.0)	1.9 (2.3)
	60세 이상	5.3 (1.1)	11.4 (-0.5)	13.0 (-0.5)	12.8 (-3.1)	13.8 (-0.2)	9.9 (1.7)	12.7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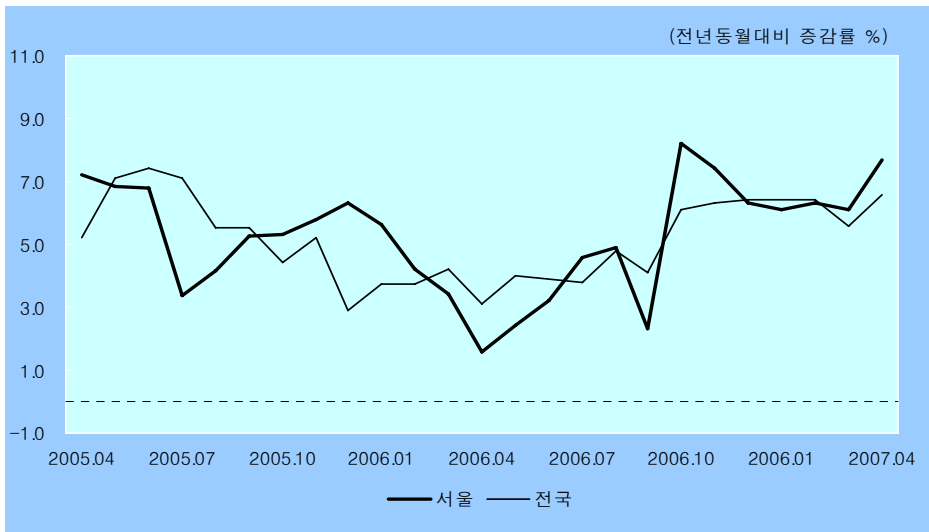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 감소

- 4월 산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8.3%)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27.3%), 제조업(14.4%), 전기·운수·통신·금융업(10.9%), 건설업(8.9%)의 순임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6.0%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며, 이어 전기·운수·통신·금융업(3.4%)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반면 제조업은 6.2%, 도소매·음식숙박업은 4.0%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폭은 지난달에 비해 큰 폭(4.9%p)으로 축소됨

■ 전문·기술·행정관리자와 사무종사자 수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

- 4월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자(30.7%)의 비중이 가장 크며, 이어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28.8%), 서비스·판매 종사자(24.5%), 사무종사자(15.9%) 순임
- 전년동월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자(1.7%)와 사무종사자(4.0%)를 제외하고, 서비스·판매 종사자(-0.7%),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1.7%)는 감소함
- 서비스·판매 종사자는 1월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를 나타내며, 감소폭은 지난 달에 비해 소폭(0.5%p) 축소됨

■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 4월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73.9% (365만1천명), 비임금근로자는 26.1%(128만9천명)로 전년동월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0%p 증가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8%(6만6천명) 증가한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3.3%(-4만4천명)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수가 지난달에 이어 감소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0.0%에 머무른 반면에 임시근로자(-0.5%)는 감소함
-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는 13.5%, 자영업자는 1.3% 감소하여 무급가족종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표〉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산업별	· 제조업	-7.0 (-3.1)	-6.1 (-6.6)	-6.8 (-1.8)	-4.3 (0.8)	-8.5 (-3.2)	-11.1 (-1.0)	-6.2 (2.3)
	SOC 및 기타서비스업	2.0 (1.4)	0.9 (2.0)	0.5 (-0.7)	0.6 (-0.6)	1.2 (-0.5)	2.1 (1.0)	1.7 (1.0)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8 (2.1)	2.5 (2.8)	3.1 (-1.2)	4.5 (0.1)	5.3 (0.2)	6.7 (1.7)	6.0 (1.5)
	· 도소매·음식숙박	-0.4 (0.0)	-1.2 (0.6)	-1.2 (1.4)	-2.6 (-2.4)	-3.4 (-2.0)	-2.2 (0.4)	-4.0 (-1.8)
	· 전기·운수·통신·금융	-1.6 (0.8)	0.3 (4.0)	-0.3 (-0.2)	-0.1 (1.5)	0.9 (-0.8)	-1.3 (-4.2)	3.4 (5.6)
	· 건설업	2.9 (3.4)	1.5 (0.6)	-3.7 (-5.7)	-3.9 (0.2)	0.2 (2.2)	1.5 (7.1)	0.4 (2.2)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4 (1.8)	2.8 (1.6)	0.4 (-2.3)	3.0 (1.6)	4.1 (0.7)	1.9 (0.0)	1.7 (1.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2.0 (2.5)	-1.0 (-1.9)	-3.0 (-3.5)	-2.3 (-0.2)	-0.6 (-2.2)	-1.4 (1.3)	-1.7 (2.2)
	서비스·판매종사자	-3.7 (-1.4)	-2.5 (1.3)	1.7 (3.7)	-2.1 (-4.0)	-5.1 (-3.7)	-1.2 (2.9)	-0.7 (-1.0)
	사무종사자	-2.5 (-1.3)	-0.9 (2.4)	-2.1 (-0.3)	0.5 (1.5)	-0.6 (-2.2)	0.4 (-1.9)	4.0 (2.2)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6 (0.8)	1.0 (0.5)	0.1 (-1.1)	2.2 (1.3)	1.8 (-1.0)	1.0 (0.2)	1.8 (1.7)
	비임금근로자	-2.1 (0.5)	-3.4 (0.7)	-2.6 (-0.2)	-6.4 (-4.9)	-5.8 (-0.6)	-2.6 (2.4)	-3.3 (-0.3)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 · 업 · 률 |

4월 기준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하락

■ 전국의 실업률 하락세 유지

- 4월 전국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3.4%(실업자 81만7천명)로 2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8%(실업자 54만5천명)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으며, 여자는 2.7%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함
- 교육정도별로 보면 중졸 이하는 2.0%, 고졸은 3.8%, 대졸 이상은 3.7%로 고졸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서울의 실업률 하락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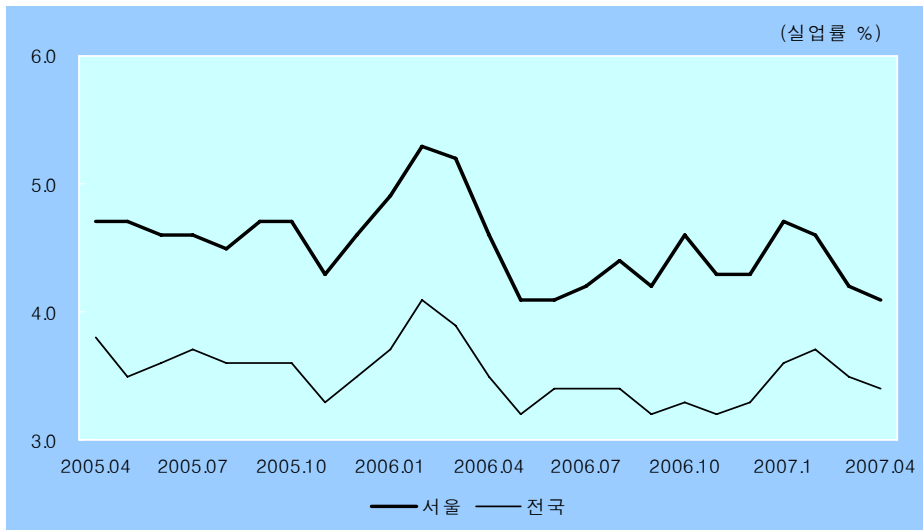
- 4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한 4.1%(실업자 21만2천명)임
- 4월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격차(0.7%p)는 3월과 동일하였으며, 지난 5년간 4월 평균 실업률 4.5% 보다 0.4%p 낮은 수준임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8%, 여자는 3.2%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2%p, 여자는 0.8%p 감소하여 여자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함
- 전국에 비해 남자는 1.0%p, 여자는 0.5%p 높은 수준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전국과의 격차가 더 큼
- 작년 7월 이후 꾸준히 확대되어 오던 남자와 여자의 실업률 격차는 2월과 3월에 1.0%p로 보합을 나타낸 이후 4월 들어 1.6%p로 다시 격차가 커짐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3.5	3.2	3.3	3.6	3.7	3.5	3.4	
서울	4.6	4.3	4.3	4.7	4.6	4.2	4.1	
성 별	남자	5.0	4.9	5.0	5.6	5.0	4.6	4.8
	여자	4.0	3.6	3.3	3.5	4.0	3.6	3.2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3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 큰 폭 증가

- 3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9,419억 원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의 건설공사 계약실적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2.0% 증가함
-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65.0%)이, 공종별로 보면 토목부문(81.4%)에서 증가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 감소

- 3월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7,65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3.1% 감소함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국의 9.6%를 차지함
- 발주자별로 보면 신규주택, 도로·교량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15.4% 감소하였으며, 신규 및 재건축·재개발주택 부문의 발주가 감소함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36.1% 감소함
- 공종별로 보면 전체 건설수주액의 85.5%를 차지하는 건축 부문에서 33.0% 감소하였으며, 13.5%를 차지하는 토목 부문에서 38.4% 감소함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7년 4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06,466㎡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 전체 건축허가면적의 31.2%를 차지하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연립(0.7%)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아파트(-1.0%)와 단독(-0.7%)의 신축허가면적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 4월 대비 0.7% 감소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공업용(12.8%)은 증가한 반면, 상업(-0.9%), 문교 및 사회(-0.9%), 기타(-1.0%)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월대비 0.8% 감소함
- 2007년 4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관악구가 총 10,883㎡(다중주택 신축허가면적 7,360㎡)를 차지하며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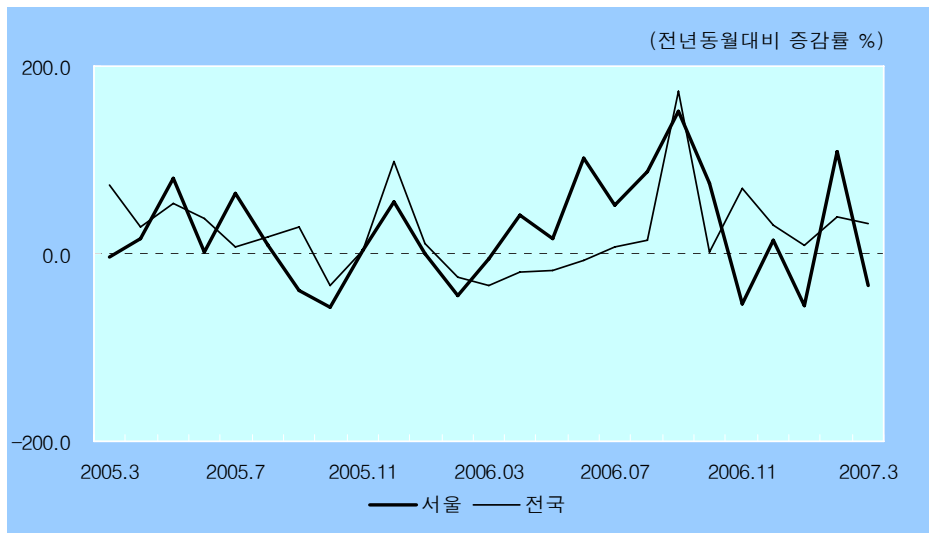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3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6,065.7	9,030.9	16,050.8	6,411.1	6,325.5	7,941.9	32.0 (25.6)	
서울	1,146.2	440.6	1,721.3	421.6	859.3	765.1	-33.1 (-11.0)	
발주 자별	공공	192.8	176.8	152.6	31.3	99.5	162.0	-15.4 (62.8)
	민간	945.7	263.8	1,564.4	390.2	759.8	603.1	-36.1 (-20.6)
공종 별	건축	976.1	313.9	1,609.3	407.7	815.4	654.1	-33.0 (-19.8)
	토목	168.8	124.2	95.8	13.6	36.5	103.2	-38.4 (182.7)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m²,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서울	1,693,030	448,101	122,682	536,251	463,808	306,466	-0.8	(-0.3)	
주거용	소계	322,963	153,946	58,578	46,534	140,262	95,525	-0.7	(-0.3)
	단독	17,183	1,400	870	4,008	5,631	5,046	-0.7	(-0.1)
	연립	39,594	71,199	46,509	41,498	96,209	68,718	0.7	(-0.3)
	아파트	266,185	81,348	11,199	1,028	38,421	8,706	-1.0	(-0.8)
비주거용	소계	1,370,068	294,156	64,103	489,717	323,546	210,940	-0.8	(-0.3)
	상업	1,004,818	231,950	49,539	76,217	160,171	103,336	-0.9	(-0.4)
	공업	6,159	19,689	3,168	0	125,957	84,899	12.8	(-0.3)
	문교/사회	246,429	41,591	10,283	412,534	28,292	22,557	-0.9	(796.3)
	기타	39,438	926	1,113	966	9,126	148	-1.0	(-1.0)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포함,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4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감소

- 4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상승함으로서 상승폭이 전월에 비해 0.1%p 감소함
- 대출규제 및 주택법 개정안 입법통과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감
- 주택법 개정안 국회법안 통과와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으로 중·대형 평형의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4월은 봄 이사철 전세수요와 연동하여 주택가격 오름폭이 큰 시기였으나, 올해 4월(0.1%)은 22년 평균 4월 변동률(0.5%)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 4월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상승폭이 3월에 비해 감소함
- 11월 이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대비 0.1%p 높은 수준으로 전국과의 격차는 다시 감소세로 반전됨
- 세부지역별로 강북은 0.5% 상승한 반면, 강남은 0.3% 하락하여 강북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비해 강남은 하락세를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 보면 연립주택이 0.7% 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0.4%)과 아파트(0.0%)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0.9	3.1	1.9	0.9	0.4	0.2	0.1 (10.8)	
서울	1.5	4.8	3.0	1.5	0.4	0.4	0.2 (17.0)	
아파트	2.3	6.2	3.7	1.8	0.3	0.2	0.0 (19.5)	
지역별	강북	0.8	4.1	3.8	2.0	0.6	0.6	0.5 (21.6)
주택매매	강남	3.2	5.4	2.2	1.1	0.2	0.2	-0.3 (18.1)

주: 전월대비 증감률, ()안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용산구, 중랑구

- 강북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 14개 구 중 11개 구가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2%)을 웃돌고 있으며, 이 중 5개 구가 강북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5%)을 상회함
- 용산구(1.3%)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어 중랑구(0.9%), 노원구(0.7%), 도봉구(0.7%), 동대문구(0.6%), 은평구(0.5%), 중구(0.5%), 서대문구(0.4%), 강북구(0.3%), 마포구(0.3%), 성동구(0.3%)의 순임
- 반면 성북구(0.2%), 광진구(0.1%), 종로구(0.1%)는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구로구, 강서구

- 강남 지역을 구별로 살펴보면 구로구(2.0%), 강서구(0.3%), 금천구(0.3%), 동작구(0.2%), 관악구(0.1%)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구에서 서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0.0%)을 하회함
- 강남구(-0.7%), 강동구(-0.5%), 양천구(-0.4%), 송파구(-0.2%), 서초구(-0.1%)는 전월에 비해 하락함
- 지난달에 이어 전반적인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세 둔화가 지속됨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월과 동일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강북은 0.5% 상승한 반면, 강남은 0.3% 하락하여 강북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강남은 하락세로 반전됨
- 구별로 보면 동대문구(0.9%), 도봉구(0.7%), 구로구(0.7%), 강북구(0.6%), 은평구(0.6%), 중랑구(0.6%), 노원구(0.5%), 성동구(0.5%), 용산구(0.5%), 서대문구(0.3%), 성북구(0.3%), 강서구(0.3%), 중구(0.2%), 금천구(0.2%), 마포구(0.1%), 동작구(0.1%), 영등포구(0.1%)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양천구(-1.0%), 강남구(-0.9%), 강동구(-0.8%), 송파구(-0.5%), 광진구(-0.2%), 서초구(-0.1%)는 전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함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한 1,739만원으로 하락세로 반전됨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서울 평균 가격 이상인 구는 강남구(3525만원), 서초구(2773만원), 송파구(2552만원), 용산구(2314만원), 양천구(2171만원), 강동구(1940만원), 광진구(1823만원)임
-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노원구(979만원), 도봉구(933만원), 강북구(924만원), 은평구(904만원), 중랑구(895만원), 금천구(887만원)임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4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둔화 지속

- 4월중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과 상승폭이 동일함
- 부동산 안정화정책과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영향에 따른 매수대기자의 전세 전환수요 증가로 전세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4월중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는 있으나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0.1%p) 감소함
- 4월은 봄 이사철 마무리 단계로서, 평균적으로 3월에 비해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4월은 지난 22년간 4월 평균 증감률(1.0%)을 큰 폭으로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강북 0.7%, 강남 0.3%의 상승률을 나타냄
-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은 0.6%, 연립주택은 0.5%, 아파트는 0.4% 상승함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4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0.6	1.0	0.6	0.4	0.3	0.4	0.4	(5.8)	
서울	0.8	1.6	0.5	0.5	0.4	0.6	0.5	(8.5)	
아파트	1.1	1.7	0.6	0.7	0.4	0.6	0.4	(9.0)	
지역별	강북	1.0	1.6	0.8	0.6	0.4	1.0	0.8	(11.0)
주택전세	강남	1.2	1.6	0.5	0.5	0.4	0.3	0.2	(7.5)

주: , () !은 전년동월비 증감률임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구로구, 성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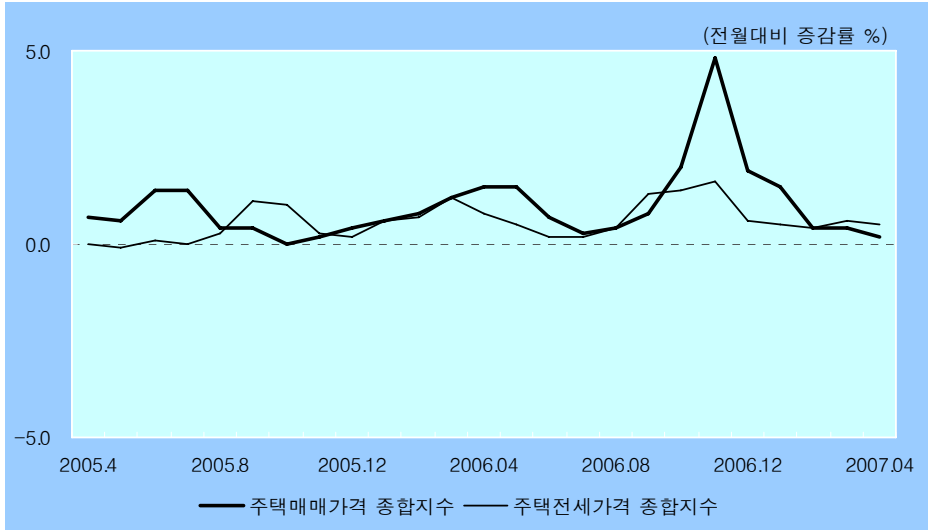
- 지역별로 보면 구로구(2.2%)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성북구(2.1%), 노원구(1.3%), 동대문구(0.9%), 중랑구(0.7%), 도봉구(0.6%)에서 서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강남구(-0.2%), 양천구(-0.2%), 서초구(-0.1%)는 하락세를 나타냄

■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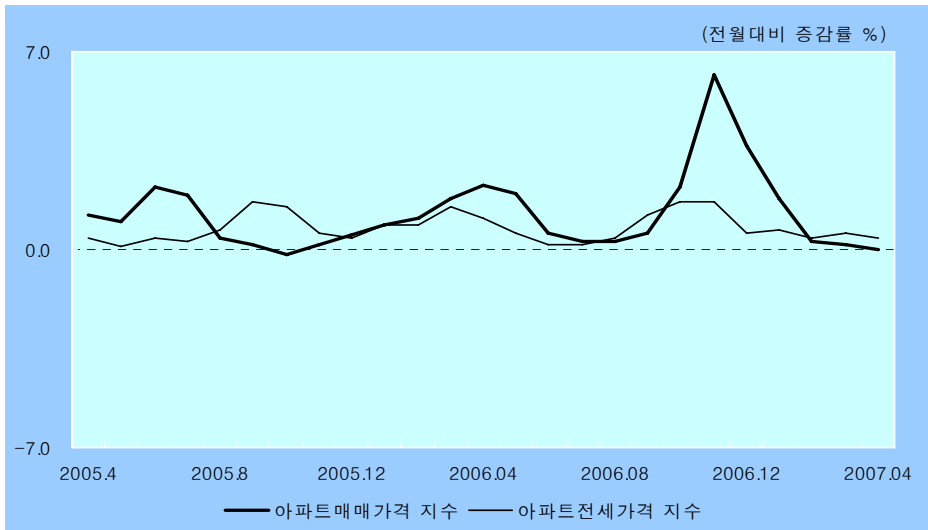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0.2%p 감소함
- 지역별로 보면 강북은 0.8%, 강남은 0.2% 상승하여 강북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강남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됨
- 구별로는 은평구(1.8%), 노원구(1.3%)에서 1.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이어 강북구(1.0%), 구로구(1.0%), 동대문구(0.9%), 성북구(0.9%), 관악구(0.9%), 도봉구(0.8%), 중랑구(0.5%)에서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양천구(-0.3%)와 강남구(-0.2%)는 전월 대비 하락함
- 4월중 서울의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5% 상승한 618만원으로 강남구(973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강북구(427만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지난 2월 이후 상승세

- 2007년 4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3.1%로 지난 3월에 비해 미미한(0.1%p) 상승을 나타냄
- 이는 전국 평균 54.6%를 11.5%p 하회하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9월:9.0%p 10월:9.1%p, 11월:10.1%p, 12월: 10.9%p, 1월: 11.4%p, 2월: 11.5%p, 3월: 11.4%)는 다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냄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9.8%, 강남은 37.6%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10% 이상으로 지속됨
- 지난 11월 이후 강남지역은 30% 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비해 매매가격 상승이 훨씬 높았음을 반영함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4월중 KOSPI 지수 전월 상승세를 이어 사상 최고치 경신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반등

- 4월말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전월대비 0.29%p 상승한 5.05%로, 전월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반등됨
- 이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외은지점에 대한 단기 외화차입 규제 우려, 단기자금 수급 불균형, 국내경기 회복 기대 등에 기인함

■ CD(91일) 유통수익률 상승

- 4월말 CD 유통수익률은 콜금리 상승, CD 차환수요 지속 및 MMF 수신 감소에 따른 수급 악화 등으로 5.0%로 상승함
- 4월말 현재 콜금리(1일)는 4.66%로, 전월대비 0.27%p 크게 상승하여 2001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장·단기 금리차 확대

- 4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와 콜금리가 큰 폭으로 동반 상승으로, 소폭 확대되어 0.17%p를 나타냄

■ KOSPI 지수 전월 상승세를 이어 계속되는 사상 최고치 경신

- 4월중 주식시장은 한미 FTA 체결과 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상향 기대감, 미·중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KOSPI 지수는 외국인 매수의 유입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1,556.7p, 4.24일)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4월 후반 들어 상승에 따른 조정과 중국건축정책 우려로 소폭 하락함
- KOSDAQ 지수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4월 중반 이후 불공정 거래 조사 소식과 급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조정됨

■ 원/달러 환율 하락

- 4월중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배당금 역송금에 따른 달러수요(환율상승) 등 계절적인 상승요인이 있으나, 주가 사상 최고치 경신과 외국인 주식투자 영향 등으로 월 초반부터 하락세를 지속하여 4.23일 926원대까지 하락함
- 월 후반에는 그동안 하락에 이은 조정국면이 전개되며 930원대로 반등 마감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25일		
금 리	국고채(3년)	4.92	5.02	4.86	4.76	5.05	5.17	6.09
	CD(91일물)	4.86	4.96	4.94	4.94	5.00	5.07	1.21
	콜금리(1일)	4.60	4.61	4.55	4.61	4.88	4.58	5.86
	장단기 금리차 ¹⁾	0.32	0.41	0.31	0.15	0.17	0.59	13.33
주 가	KOSPI ²⁾	1,434.5	1,360.2	1,417.3	1,452.6	1,542.2	1,644.6	6.17
	KOSDAQ ²⁾	606.2	576.4	600.9	649.0	675.9	719.5	4.14
환율 (W/US\$) ²⁾	930.6	940.9	941.8	940.9	930.8	931.5	-1.07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 3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1.4조원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됨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 위축 등에 따른 개별대출의 신규취급 부진, 주택금융공사앞 대출채권 매각 등으로 미증에 그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 대출은 은행들의 우량고객 확보노력에 따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3조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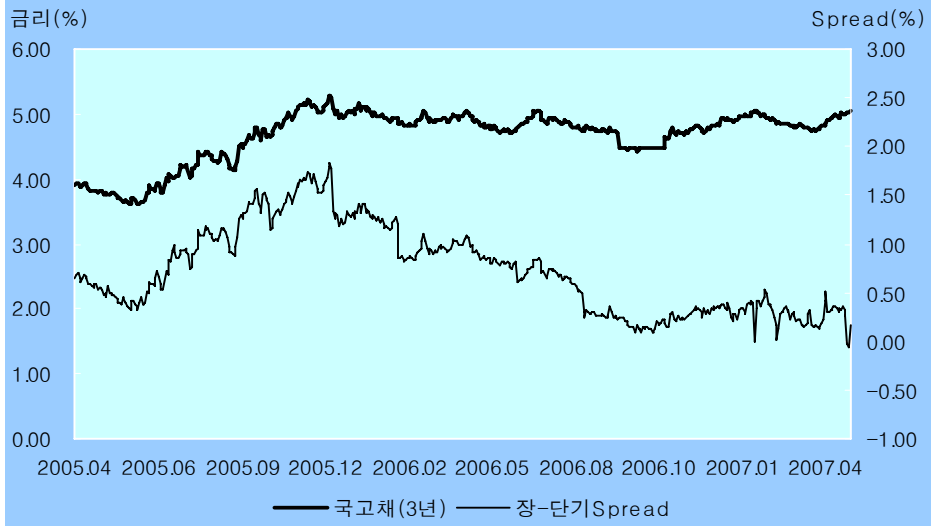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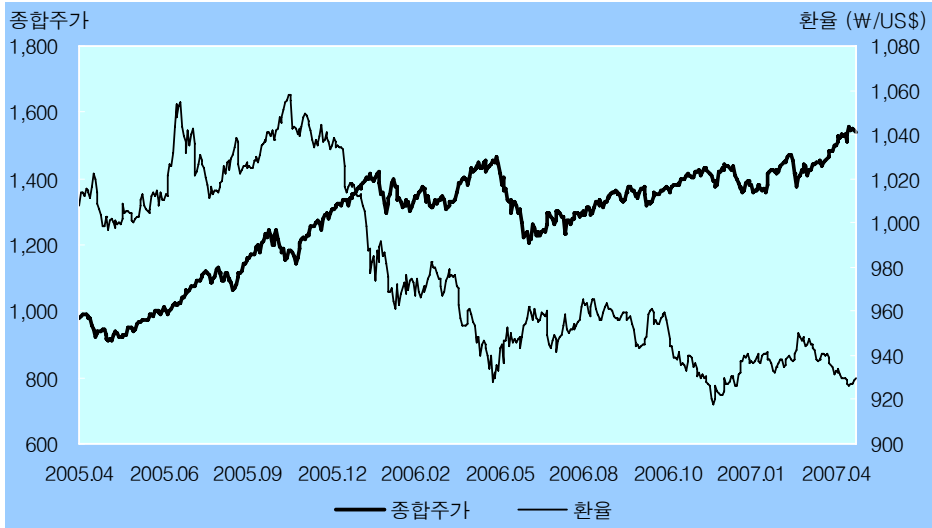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월말잔액		전월비
	연중	4월	1월	2월	3월	4월	2007년		
							3월	4월	
가계대출 ¹⁾	40.9	2.6	-0.2	1.9	0.7	1.4	348.0	349.4	0.40
주택담보대출 ²⁾	26.8	1.2	0.7	0.4	0.0	0.0	218.2	218.3	0.05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4.0	1.5	-0.9	1.5	0.7	1.3	128.2	129.5	1.01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3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증가폭 확대

- 3월말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940조 6,174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 8791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2월 증가액: 9조 9,775억원)이 소폭 확대함
- 3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361조 3,788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 6,084억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액은 전월(3조 1,438억원)보다 크게 확대됨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원)

		2006년		2007년			증감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예금은행	628,647.7	699,430.3	700,256.6	708,048.2	717,066.5	9,018.3
	비은행기관	193,776.2	217,282.3	219,504.2	221,690.1	223,550.9	1,860.8
	합계	822,423.9	916,712.6	919,760.8	929,738.3	940,617.4	10,879.1
서울	예금은행	266,196.2	291,319.0	289,422.6	291,432.1	295,805.6	4,373.5
	비은행기관	50,550.7	60,442.8	63,204.0	64,338.3	65,573.2	1,234.9
	합계	316,746.9	351,761.8	352,626.6	355,770.4	361,378.8	5,608.4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3월 기준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

- 3월말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서울의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전월에 비해 0.5%p 상승한 55.6%임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6년		2007년			증감
	3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83.5	83.2	84.0	83.9	84.1	0.2
서울	58.1	55.8	55.1	55.1	55.6	0.5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 · 업 · 동 · 향 |

4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

- 4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7.2%(-356개) 감소한 4,576개임
- 업종별로는 전월대비 제조업(-3.5%), 건설 및 설비업(-4.9%), 서비스업(-18.4%) 등 전업종이 감소함
- 업종별 비중은 서비스업 63.3%, 제조업 19.1%, 건설 및 설비업 16.5%를 차지함

■ 서울 신설법인 수 감소

- 4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6.1%(-115개) 감소한 1,764개이고, 전국대비 지역별 비중은 38.5%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월대비 2.9% 증가하였고, 서비스업(-5.7%), 건설 및 설비업(-17.4%) 등은 감소함

■ 서울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1,495개로 전월대비 5.7%(-91개) 감소함
- 부문별로 보면 부동산 및 임대업(2.0%)만이 증가하였고 그 외, 통신업(-47.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17.6%), 기타서비스업(-7.4%)등 대부분이 감소함
-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월(84.4%)과 비슷한 84.8%로 나타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056	5,337	4,072	4,932	4,576	-356	-7.2	520	12.8
서울	1,618	1,981	1,524	1,879	1,764	-115	-6.1	146	9.0
서비스업	1,327	1,639	1,283	1,586	1,495	-91	-5.7	168	12.7
제조업	137	150	110	136	140	4	2.9	3	2.2
건설 및 설비업	154	192	129	155	128	-27	-17.4	-26	-16.9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4월 기준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전국 어음부도율 상승

- 4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대비 0.01%p 상승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69개로, 전월(216개) 보다 47개 감소하여 2006년중 평균 211개를 하회함
- 업종별로 제조업(79개→58개)과 건설업(41개→38개), 서비스업(91개→66개) 등 모두 감소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

- 4월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1%로 전월과 동일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월(65개) 보다 13개 감소한 52개로, 2006년중 평균(74.3개)을 하회함
- 지역별 부도업체 수는 서울이 13개, 지방은 34개(151개→117개) 각각 증가하였고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전국 부도업체 수의 30.8%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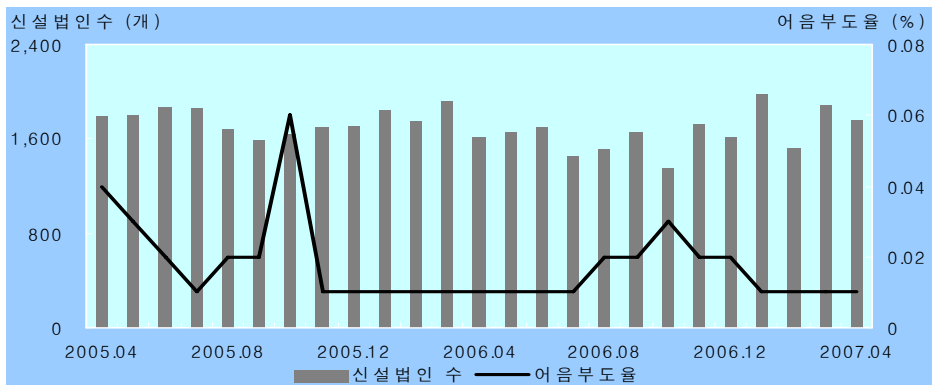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2	0.02	0.02	0.01	0.02	0.01	100.0	0	0.0
	부도업체 수	235	188	159	216	169	-47	-21.8	-66	-28.1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1	0.01	0.01	0.01	0	0.0	0	0.0
	부도업체 수	79	66	59	65	52	-13	-20.0	-27	-34.2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3월 기준 소상공인의 보증 비중 증가

■ 신용보증 공급의 꾸준한 증가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4월중 3,254건, 71,217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 74.7%, 금액 28.9% 증가함
- 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시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건당 평균금액은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보증수요 증가로 보증 건수 및 금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664	1,081	621	1,005	1,863	3,254	1,391	74.7	2,590	390.1
금액	19,005	39,401	17,882	33,485	55,239	71,217	15,978	28.9	52,212	274.7
건당평균금액	28.6	36.4	28.8	33.3	29.7	21.9	-7.8	-26.3	-6.7	-23.4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 증가

- 4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전월과 비교하여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5.5%p 감소하여 19.7%를 나타낸 반면,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의 비중은 각각 4.0%p, 3.0%p 증가함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395	1,145	694	676	344	3,254
비율	12.1	35.2	21.3	20.8	10.6	100
금액	14,050	26,574	10,485	13,918	6,190	71,217
비율	19.7	37.3	14.7	19.6	8.7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의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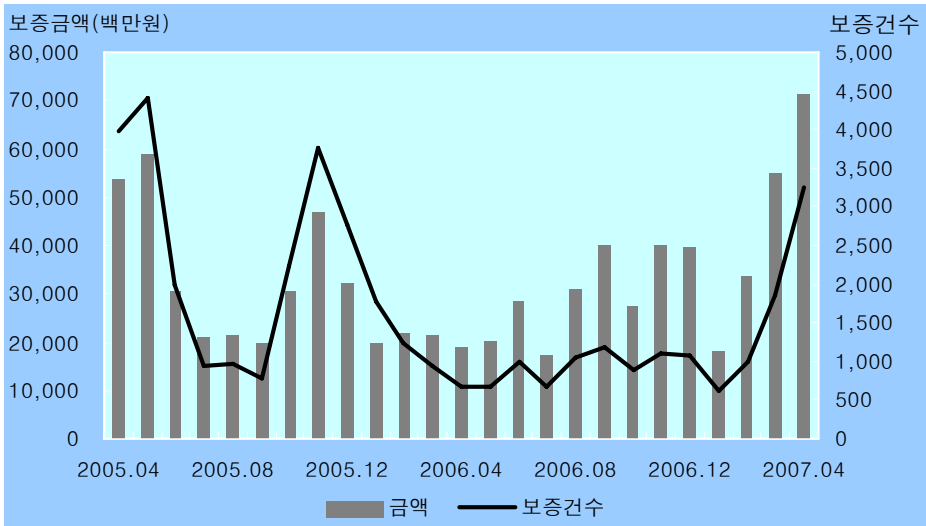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영향으로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6.9%p 증가하여 77.9%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 소기업의 비중이 2개월 연속 감소하여 14.9%를 나타냄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7.02	2007.03	2007.04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918	1,716	3,063	1,347
	비율	91.3	92.1	94.1	2.0
	금액	24,724	39,220	55,500	16,280
	비율	73.8	71.0	77.9	6.9
소기업	건수	71	116	149	33
	비율	7.1	6.2	4.6	-1.6
	금액	6,889	11,245	10,602	-643
	비율	20.6	20.4	14.9	-5.5
중기업	건수	16	31	42	11
	비율	1.6	1.7	1.3	-0.4
	금액	1,872	4,774	5,115	341
	비율	5.6	8.6	7.2	-1.4
합계	건수	1,005	1,863	3,254	1,391
	비율	100	100	100	0
	금액	33,485	55,239	71,217	15,978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4월 기준 서울 수출 및 수입 전년동월대비 높은 증가세

■ 전국 수출 견실한 증가세 지속

- 4월 전국의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0.5일), 자동차 수출의 대폭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7.1% 증가한 299억 6,180만불을 기록하여 2006년 2월부터 15개월 연속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가 전년도 기저효과(06년 4월: 0.3%) 및 수출지역 다변화 등에 따라 높은 증가세(25.1%)를 보이는 등 철강(37.3%)·반도체(13.8%) 등도 호조세를 지속함

■ 전국 수입,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 4월 전국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9.8% 증가하여 293억 2,560만 불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용도별로는 자본재 수입이 정밀기기,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원자재 및 소비재의 증가세도 크게 확대되어 원자재·자본재·소비재 모두 고른 증가세를 나타냄

■ 서울 수출 증가세 큰 폭으로 확대

- 4월 서울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2.5% 증가한 22억 6,100만불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품목별로는 기계류(24.2%), 철강금속제품(20.0%), 전자전기제품(19.0%) 등 대부분이 증가함. 국가별로는 중국(27.2%), 미국(1.4%), 러시아연방(53.2%) 등 대부분이 증가한 가운데 일본(-13.6), 홍콩(-0.4%) 등은 감소함

■ 서울 수입, 수출 증가율을 두배 이상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 4월 서울의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크게(25.8%) 증가한 58억 9,290만 불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제품(71.4%), 기계류(58.0%)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함. 국가별로는 중국(34.2%), 미국(49.7%), 태국(27.9%) 등 대부분이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6년				2007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5,590	28,775	28,084	26,224	30,393	29,961.8	4,371.8	17.1	-431.2	-1.4
	수입	24,486	27,518	27,668	25,315	29,106	29,325.6	4,839.6	19.8	219.6	0.8
서울	수출	2,010	2,222	2,007	1,826	2,331	2,261.0	251.0	12.5	-70.0	-3.0
	수입	4,686	5,160	5,166	4,794	5,470	5,892.9	1,206.9	25.8	422.9	7.7

주: (전월비)는 부지표입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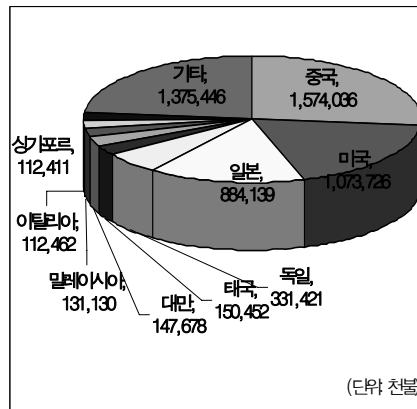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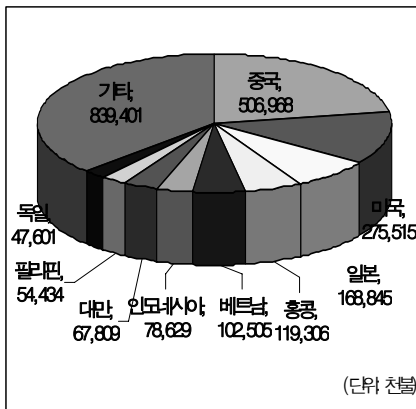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6년 4월		2007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2,009,925	-13.2	2,261,013	12.5
1	섬유류	553,690	-16.9	588,598	6.3
2	전자전기제품	460,979	-38.3	548,617	19.0
3	기계류	337,937	34.5	419,856	24.2
4	화학공업제품	237,519	24.7	252,095	6.1
5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55,125	15.4	176,945	14.1
6	철강금속제품	87,303	-1.6	104,761	20.0
7	생활용품	85,116	-8.4	81,122	-4.7
8	농림수산물	54,694	-8.3	47,148	-13.8
9	잡제품	29,361	-58.8	31,264	6.5
10	광산물	8,200	-36.0	10,605	29.3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6년 4월		2007년 4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계	4,685,636	7.8	5,892,901	25.8
1	전자전기제품	1,502,470	3.2	1,630,185	8.5
2	기계류	709,001	19.4	1,120,546	58.0
3	화학공업제품	583,949	9.5	681,878	16.8
4	철강금속제품	340,281	-12.1	583,272	71.4
5	농림수산물	448,904	2.9	523,301	16.6
6	섬유류	427,039	22.5	479,745	12.3
7	광산물	271,078	5.6	321,155	18.5
8	생활용품	191,512	26.0	226,456	18.2
9	잡제품	104,253	10.8	209,632	101.1
10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107,149	18.6	116,732	8.9



〈그림〉 서울의 품목별 수출(왼쪽) 및 수입(오른쪽)